

검찰, 지방선거 '가짜 뉴스'와 전쟁 선포

광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전담팀 구성...구속 수사 원칙

단체장 입지자 잇단 피해 속 다음달까지 비상근무 돌입

#1. 최근 광주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무원 출신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소문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재임시절 한 계약업체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모든 내용은 '유언비어'였지만, A씨는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2. 광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 B씨는 최근 자신의 아내가 특정단체에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소문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 퍼져 곤욕을 치렀다.

해당 장학금은 지역의 한 사찰에서 지원한 것으로, 해당 사찰이 먼저 구청장에 장학금 수여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문의 출처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한 구의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자신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6·13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가짜뉴스 사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2일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

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이른다. 광주지검도 지방선거 사범 14명 중 4명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등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의 디지털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NDFC는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범죄 단서를 찾는 이른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맡는 기관이다.

검찰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구속 수사한다

는 원칙도 정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외에도 전반적인 선거 사범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2단계 비상근무체계' 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한다. 또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는 재활용품 수거 대란 없어요” 수도권에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2일 광주시 북구 재활용품분리장에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민간 선별업체가,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 배출 할 경우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경 '당원명단 유출' 수사 확대

“입건 여부·혐의 확정 단계 아나

앞으로 진행할 수사 남아 있어”

검·경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개월간 벌인 경찰 수사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

법률 적용,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까지 모두 살펴본 검찰은 일부 관련자 혐의에 대해 보완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검찰 의견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경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 입건 여부, 혐의 사실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사가 남아있고 혐의, 사법처리 등에 대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사할 관련자는 문자를 보낸 이응식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비서, 당

원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고 혐의를 보강해 검찰에 다시 입건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가 나오면 고발된 당사자인 이 예비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자 통화·계좌내역, 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원 명단을 분석,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 사법처리,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 사망

지난 3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한 대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장모(56)씨가 추락했다. 장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오전 숨졌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아파트 지하 공사현장에서 홀로 외벽을 보강하기 위해 미장작업을 하던 중 3.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3월부터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해왔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 동료 작업자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임시전화 449대 개설 여론조사 왜곡 전남도선관위, 예비후보자 등 35명 검찰 고발

울 지방선거 전국 첫 적발

임시전화 449대를 개설해 전화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예비후보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뒤 착신전화와 중복응답 방식을 이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6·13 선거를 앞두고 전화 착신전화 및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이날 전남지역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화하는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한달 여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임시전화 449대를 개설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전화를 착신

전화, 모두 250차례에 걸쳐 중복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씨의 지지도는 12.2%로 전체 3위였다”며 “그러나 3월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포인트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2개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게 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남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와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심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건, 경고 5건, 준수촉구 1건 등 총 7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허위 서류 꾸며 사기 대출 무더기 검거

광주지검, 18명 적발·9명 추적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모집한 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익원대의 신용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급여거래 내역 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체들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낸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총책 A(41) 씨 등 5명을 구속수사하고, 알선책 B(여·47) 씨 등 13명을 불구

속시켰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9명을 뒤쫓고 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자신은 대출신청 명의자의 은행 급여 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위조해 22개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53회에 걸쳐 총 3억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다.

대출자들은 많게는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20%를 작업총액인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알선책에게는 5%를 알선수수료로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속옷 상습 절도 변태남 잡고보니 같은 원룸 입주자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을 상습적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온 30대 변태남이 경찰 과학수사팀의 '다가능 증거물 검색기'에 걸렸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황모(30)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이모(여·31)씨의 3층 원룸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던 속옷 2점 등을 훔치

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속옷 4점을 가져갔다는 것.

○경찰은 사건현장 바닥에 빛을 투사해 얼룩 등을 찾을 수 있는 '다가능 증거물 검색기'로 이씨 집안을 살펴본 결과 성인 남성의 신발 자국을 발견했으며, 족적 추적을 통해 이 원룸 5층에 살고 있던 황씨를 검거. 김현영기자 youn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트 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